

# 濟州의 거울로서의 臺灣\*

— 李昂의 《눈에 보이는 귀신(看得見的鬼)》小考

趙洪善\*\*

---

◁ 목 차 ▷

---

- I. 서론
  - II. 대만과 제주의 명칭
  - III. 귀신의 의미와 역할
    - 1. 귀신의 의미
    - 2. 귀신의 역할
      - 1) 자아에 대한 각성
      - 2) 인식의 심화-구술사 서술
      - 3) 새로운 목표 설정-해탈
  - IV. 結論
- 

## I. 서론

작품의 제목은 일종의 ‘허구외적 목소리’<sup>1)</sup>로서 독자에게 일정한 ‘텍스트적 기대’<sup>2)</sup>를 안겨주는 서사장치 중 하나다. 《눈에 보이는 귀신(看得見的鬼)》<sup>3)</sup>이란 제목이

---

\* 이 논문은 2015학년도 제주대학교 교원성과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제주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 1) 이는 “작가가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으로서, “허구외적 자료의 대부분은 소설이 시작되기 전에 조우하기 때문에, 그리고 허구외적 목소리는 역사의 존재론적 지위를 수반하기 때문에 그것은 관습적으로 궁극적인 텍스트의 권위로서 작용”한다. 이는 또한 웨인 부우드(Wayne C. booth)의 ‘내포작가와 마찬가지로 “허구적인 이야기 그 자체 내에서의 서술존재는 아닐 수도 있지만 소설세계라는 존재 그 자체, 인물, 그들의 이름과 개성, 플롯의 조직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다. 수잔 스나이더 랜서(Susan Snaider Lanser), 김형민 역, 《시점의 시학》(서울, 좋은날, 1998), 133쪽 참조.
- 2) “특히 텍스트의 타이틀, 텍스트의 장르, 목적, 방식에 관해 제공되는 모든 정보를 통하여, 그리고 작가의 이름을 통하여” 독자에게 기대를 안겨준다. 《시점의 시학》(서울, 좋은날, 1998), 128-129쪽.

허구외적 목소리로서 독자에게 안겨주는 텍스트적 기대라면 상투적인 귀신 이야기 외에 '눈에 보인다'는 수식으로 인한 상투성을 벗어난 그 무엇인가이다. 작품 도입부에 보이는 작품의 배경 루강(鹿港, 혹은 루청 鹿城)에 대한 아래의 서술은 제목에서 받았던 텍스트적 기대에 걸맞게 단순한 귀신 이야기가 아니라 대만의 전체 역사에 대한 기술로서 이는 또한 최근 제주의 상황을 연상케 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한인들이 이곳을 개간하기 위해 찾아오기 전부터 평포족의 지파인 바부자가 이곳에 무리를 지어 살면서 마즈린사라 칭했다. 이곳은 평야가 비옥하고 거대한 무리의 매화사슴이 해구의 초원 위를 뛰놀았다.

바부자이들은 사슴을 잡아 가죽과 고기를 과거의 통치자였던 네덜란드인들에게 건네고 대신 필요한 물품을 얻어냈다.……

고기잡이와 사냥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바부자족 사람들은 한인들이 내려와 식민지를 개척하기 시작한 뒤로 순식간에 해안가의 평야지역을 빼앗기고 점차 산간지역으로 쫓겨가게 되었다. 이들은 산으로 이주하면서 늙어서 움직일 힘이 없는 부녀자와 아이들은 그대로 남겨두었다. 이곳을 점령한 한인들은 이들의 거주지를 가리켜 '번과장 番婆莊' 또는 '下番婆'라고 불렀다.

이들이 '번과장'과 '하번과'를 모두 잃고 다시 산간지역 어귀로 쫓겨나자 한인들은 그곳을 頂番婆라 불렀다.

가장 꼭대기, 마지막 거주지라는 의미였다. 4)

위 인용문에는 대만의 400여년 역사가 간단히 개괄되어 있다. 원주인이었던 平埔族이 먼저 살고 있었고, 네덜란드인, 한인 등으로 지배자가 바뀔에 따라 원주인들은 편벽진 곳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이는

3) 李昂(1952~ ): 원명 施叔端, 臺灣 彰化 鹿港鎮 출생. 《눈에 보이는 귀신》은 그녀의 2004년 작으로(臺灣新北, 聯合文學출판사), 〈나라의 동쪽·정번과의 귀신(國域之東頂番婆的鬼)〉, 〈나라의 북쪽·대나무의 귀신(國域之北吹竹節的鬼)〉, 〈나라의 중심·불견천의 귀신(國域之中不見天的鬼)〉, 〈나라의 남쪽·임투 숲의 귀신(國域之南林投叢的鬼)〉, 〈나라의 서쪽·여행하는 귀신(國域之西會旅行的鬼)〉 등 5편의 중단편소설로 이루어져 있다.

4) 李昂, 김태성 역, 《눈에 보이는 귀신》, 문학동네(과주, 2011), 11-12쪽. 이하 본고에서 김태성이 번역한 《눈에 보이는 귀신》을 텍스트로 한다.

동시에 제주의 역사 혹은 현재와 미래를 바로 연상케 한다. 제주에도 원주인이 있었고, 그들의 삶 역시 이주민들, 몽고의 지배(1273년-1374년), 최근 제주에서 불고 있는 육지에서의 이주와 외국인 투자 열풍 등으로 인해 여러모로 결정되어 왔고 앞으로도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만과 제주는 닮았다. 대륙과 섬, 반도와 섬이라는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정해진 운명이 침략과 피침략, 식민과 피식민 등으로 닮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가장 가까운 현대사를 살펴봐도 대만의 二·二八과 제주의 四·三이라는 거대한 사건이 거의 동시에 발생한 것만 봐도 두 지역이 얼마나 닮아 있는지 알 수 있다.

문제는 이들 사건이 주체에 따라 역사와 기억으로 다르게 남는다는 것이다. 승자가 강요했던 기록은 역사로 남고, 진실은 피해자들의 기억 속에 남아 '역사=승리한 가해자의 기록, 기억=패배한 피해자의 기억'이라는 단순화된 도식으로 설명이 되곤 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역사와 기억 사이에 엄청난 간극이 발생한다. 이 간극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으로 근대 국가의 형성을 위해 국민사가 의도적으로 서술되고 편찬되었던 과정이 거론되곤 한다.<sup>5)</sup>

다른 한편 이 간극을 메우려는 움직임, 즉 역사 일변도였던 상황에서 기억이 점차 주도권을 차지해가는 상황으로의 변화는 역으로 이 간극을 발생시켰던 원인이 흔들리면서 발생한다. 김학이는 얀 아스만의 "문화적 기억"(Jan Assmann das kulturelle Gedächtnis)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면서 최근 역사가 아닌 기억에 주목하는 이유로 다음 몇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현실적으로 과거, 특히 현재를 정립한 역사적 시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둘째, 구조에

5) 이에 관해서 홉스봄은 근대국가가 성립함과 더불어 국민적 일체감의 조성과 유지를 위해 국민사(national history)가 의도적으로 서술 편찬되고, 그것이 기억을 대신하여 전통을 새롭게, 더 확실한 기반 위에서 창출해 간 것이라고 설명한다(Eric J. Hobsbawm, 1972, "The Social Function of the Past: Some Questions," *Past and Present* Vol 55(May): 3-17.). 피에르 노라 역시 '역사의 가속화'로 인하여 근대사회는 의식적으로 과거를 조직하기 시작했고, 여기서 기억과 역사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결국에는 대립하게 되기까지 했다고 해석하고 있다(Pierre Nora, 1989, "Between Memory and History: Les Lieux de Mémoire," *Representations* 26:7-25). 홉스봄과 피에르 노라의 견해에 대해서는 김영범, <집합 기억의 사회사적 지평과 동학>;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사회학연구실 編, 《사회사 연구의 이론과 실제》(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8), 174쪽에서 참조.

집중하던 역사학이 더 이상 호소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역사적 구조란 당대인에게 보이지 않는, 그리하여 사후적으로 비로소 파악될 수 있는 과정 및 관계를 의미한다. 생생한 체험으로서의 과거, 즉 삶으로서의 과거는 역사라기보다 기억의 문제라는 것. 셋째, 정체성이 흔들렸기 때문이다. 냉전의 종식, 신자유주의적 지구화(globalization)의 확대, 복지국가의 약화 등은 지난 2백 년 간 근대적 정체성의 내용을 형성했던 민족국가의 의미를 흔들고 있다. 이에 대한 해법은 대항 지구화에서도 찾아지지만,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기억에서도 찾아진다.<sup>6)</sup>

본고는 《눈에 보이는 귀신》 역시 이러한 간극을 메우려는 행위로 해석한다. 귀신의 시각으로 제시되는 대만인들의 '생생한 체험으로서의 과거'는 기존의 역사서에서 제시되던 내용과는 사뭇 다를 것이다. 동시에 이에 상응하는 제주의 상황들은 제주사를 다룬 역사서와 소설 등을 통해 제시해봄으로써 두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역사와 기억 사이의 간극 메우기는 어느 정도에까지 이르고 있는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러한 시도가 바람직한 것인지까지 탐색해보고자 한다.

## II. 대만과 제주의 명칭

이름이란 사전적으로만 해석을 해봐도 '물건, 사람, 장소, 생각, 개념 등을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해 부르는 말'로서 그 사물이나 사물의 존재를 규정하고 증명하는 최후의 단계로서 그 대상의 정체성 형성에 사뭇 강력한 작용을 하는 장치라 할 것이다. 시점이론에서는 어떤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에 대한 태도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조건 지워진다'고 설명한다.<sup>7)</sup> 《눈에 보이는 귀신》의 귀신들은 모두 아래의 예에서 보듯 이름이 많다.

6) 김학이, 〈민족의 기억, 민족의 상상: 안 아스만의 "문화적 기억"〉, 김학이·김기봉 외: 《현대의 기억 속에서 민족을 상상하다》(부산, 세종출판사, 2006), 11쪽.

7) 보리스 우스펜스키, 김경수 옮김, 《소설구성의 시학》(현대소설사, 서울, 1992), 51쪽. 우스펜스키는 이에 대한 설명으로 나폴레옹이 권력을 쥐기 전인 1815년 파리를 행진하는 동안에 파리의 신문들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를 '코르시카의 괴물', '식인종', '찬탈자',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황제폐하' 등으로 바꾸어 불렀던 사례를 들고 있다.

그때 그녀는 여전히 바부자족의 이름을 갖고 있었다. 이를 한자로 표기하자면 이라伊拉, 이판렌伊凡蓮, 와나娃那 등으로 쓸 수 있다.

하지만 사람들이 기억하는 그녀의 이름은 월진月珍/월주月珠였다.

월진/월주는 어느 한인에게서 얻은 이름이었다.(<나라의 동쪽. 정변파의 귀신>, <눈에 보이는 귀신>, 12쪽)

그때만 해도 그녀에게는 이름이 있었다. 香蓮이래해도 좋고 淑麗라 해도 좋았다. 美貴나 麗貞으로 불리기도 했다…….

그녀는 또 月紅 또는 月玄이라 불리기도 했다. 나중에는 친족 중에 진사에 급제한 노인이 있어 원래 부르던 현을 璇으로 바꿔 부르게 되었다.(<나라의 중심. 불견천의 귀신>, 119쪽)

그 당시 그녀에게 붙여진 이름 가운데 罔市, 美貴, 招弟, 香蓮, 淑麗 등이 그런대로 괜찮았다.

하지만 그녀는 간혹 月嬋이라 불리기도 했고 때로는 月娥라 불리기도 했다.

그저 그녀의 부모님(혹은 부모를 대신해서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여자 아이를 부르던 호칭이었을 뿐이다.

월항/월이는 용모가 그다지 뛰어나진 않았다.(나라의 서쪽. 여행하는 귀신, 257쪽)<sup>8)</sup>

이들의 이름은 모두 이들을 지배하는 세력(혹은 부모)의 필요에 따라 정해졌다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 예술인들의 필명이나 가명과는 달리 본인들의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바부자 족을 지배하던 한인들이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바부자 족 고유의 이름을 한인들이 부르기 편한 이름으로 바꾸었고, 부모나 집안 어른들이 자신들의 희망을 기탁하거나 집안 어른과의 중복을 피해 애초에 지어준 이름을 바꾸기도 했다. 또는 일반적인 여자아이의 호칭으로 이름을 대신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의 이름은 이들의 이름을 지은 자들이 이들에 대해 품었던 태도를 정확히 반영

8) 이 부분의 번역은 약간의 오역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문을 보면 “那時候, 她有一个名字, 可以是罔市、美貴、招弟、香蓮、淑麗……。不過, 她或該喚作月嬋, 或者月娥。她当然沒有嫦娥的美貌, 名喚月嬋 / 月娥, 只是父母(或代取名字的人)對女人的稱号。”라고 되어 있다. 즉 ‘月嬋’이나 ‘月娥’가 미모가 뛰어나서 지어진 이름이 아니라, 일반적인 부모들(번역문처럼 그녀만의 부모가 아니라)이나 작명가들이 여자아이들에게 아무렇게나 지어주는 이름으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이었다. 게다가 이들의 이름이 타의에 의해 자주 바뀌는 과정이나 두 개씩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이들의 운명 역시 이들의 이름처럼 타인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거나 그 정체성이 명확치 않음을 암시한다.

다른 한편 인물의 이름은 이들 인물이 살았던 대만의 명칭과, 또 이들과 운명이 닮은 사람들의 지역 제주의 명칭과도 공통점이 보인다. 대만의 명칭은 早期 초기 중국 문헌에서 夷州、流求、琉球 등이었다가 明清時代에는 東番、雞籠、北港、臺灣 등으로 다양했다.<sup>9)</sup> 문제는 이들 명칭이 모두 대만인들이 기록한 사서가 아니라 《前漢書》、《三國志·吳書》、《隋書·流求國傳》《明實錄》、《明史·雞籠》、《明史稿·琉球傳》 등 모두 중국인들의 기록물에서 보이는 '중국인이 대만을 부르는 명칭'이라는 점이다. 또한 이렇듯 통일되지 않은 명칭은 당시 중국인들에게 대만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 않았다는 방증이며, 대만이 그들에게 그리 중요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제주의 명칭 역시 술하게 많다. 고대의 제주를 일컫는 말로 耽羅, 耽牟羅國(《三國史記》), 涉羅(《高句麗本紀》), 毛羅(《삼국유사·馬韓》) 등을 들 수 있다. 탐라에서 제주로 이름이 바뀐 것은 고려 고종 10년경인 1223년 경으로 추정하고 있다.<sup>10)</sup> 중요한 것은 탐라와 제주라는 명칭의 변화에 담긴 의미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제주를 뜻하는 '耽羅', '耽牟羅國', '涉羅', '毛羅'의 '耽(tam-이하 한국어 발음)', '耽牟(tammo)', '涉(sub)', '毛(tag)' 등은 소리글자로서 섬(sum, 島)이라는 뜻이며 뒷 글자에 공통된 '羅(ra)'는 나라(nara, 國)를 의미하는 것으로, 곧 '섬나라'라는 나라 이름으로 해석된다.<sup>11)</sup> 그리고 '濟州'에서 '濟'는 '큰 물을 건너다'라는 뜻이고, '州'는 原州, 尙州, 慶州, 全州, 羅州와 같은 한반도의 다른 지명에서 보이듯 큰 고을이나 중요한 행정구역을 의미하므로, '濟州'는 한반도로부터 바다 건너 먼 지역에 있는 중요한 행정구역이라는 의미이다. 즉 '耽羅'에서 '濟州'로 명칭이 변했

9) 高明士編, 《臺灣史》(臺中, 五南, 2009), 61쪽.

10) 이영권, 《새로 쓰는 제주사》(서울, 휴머니스트, 2005), 70쪽.

11) 朴趾源(1737-1805)의 《燕巖集》第6卷 別集에 실린 다음과 같은 글이 그 최초의 근거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살펴보니 모두 탐라耽羅이다. 동국(우리나라)의 방언으로 島(도)는 섬(剌)이라한다. 그리고 國을 일러 羅羅(나라)라고 한다. 탐耽, 섬涉, 섬澹의 세 음은 아울러 섬(剌)과 서로 비슷하니, 대개 섬나라(島國)를 말하는 것이다. (按此皆耽羅也. 東國方言. 島謂之剌. 而國謂之羅羅. 耽涉澹三音, 并与剌相類. 盖云島國也.)"

다는 것은 '나라'에서 행정구역으로 위상이 격하된 것을 의미한다. 한편, 탐라가 제주에서 잠시나마 탐라라는 명칭을 회복하나 이는 제주가 몽고의 직할지가 되었던 1273년 무렵부터였다 한다. 耽羅國招討司, 耽羅總管府라는 명칭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으나 이는 몽고가 제주도를 고려에서 완전히 떼어내어 직접 지배하려는 의도였다.<sup>12)</sup> 이러한 명칭의 변화는 역시 타의에 의해 외세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제주의 운명을 상징한다 할 것이다. 이러한 제주의 운명은 <순이삼촌>(1978)으로 4·3사건을 최초로 고발한 玄基榮 <해룡 이야기>의 아래 묘사로 설명되고 있다.

육지 중앙정부가 돌보지 않던 머나먼 벽지, 귀양을 떠난 적객(謫客)들이 수륙 이천리를 가며 천신만고 끝에 도착하던 유배지, 목민(牧民)에는 뜻이 없고 오로지 국마를 살찌우는 목마(牧馬)에만 신경 썼던 역대 육지 목사들, 가뭄이 들어 목장의 초지가 마르면 지체 없이 말을 몰아 백성의 일년 양식을 먹여치우게 하던 마정. 백성을 위한 행정은 없고 말을 위한 행정만 있던 천더기의 땅. 저주받은 천형의 땅 .....<sup>13)</sup>

다른 한편 한국에서는 대만이라는 지명의 발음 역시 두 가지로 혼재되어 있다. 즉 한국어 발음으로 읽을 것인지, 현지의 발음으로 읽을 것인지 명확히 통일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민감하게 구별 하지는 주장에 관심이 간다. 즉 臺灣을 한국어 발음으로 '대만(Daeman)'으로 읽으면 臺灣을 하나의 (준)국가로 보는 것이고, '타이완(Taiwan)'으로 읽거나 표기하면 臺灣을 중국에 속한 한 지방으로 보는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국가의 이름은 한국식으로, 지방의 이름은 현지음으로 발음하고 표기하기 때문이다.<sup>14)</sup>

12) 《새로 쓰는 제주사》 70-73쪽 참조.

13) <해룡 이야기>, 《순이삼촌》(坡州: 創批, 2014년판), 146쪽.

14) <서문: 대만 가는 길>, 收錄於崔元植·白永瑞 編: 《대만을 보는 눈: 한국-대만, 공생의 길을 찾아서》(坡州: 創批, 2012), 6쪽.

### Ⅲ. 귀신의 의미와 역할

#### 1. 귀신의 의미

《눈에 보이는 귀신》이라는 제목에서 발생하는 텍스트적 기대를 다시 분석해보면 두 가지가 다가온다. 하나는 ‘귀신이 왜 눈에 보인다고 하는 것인가’이고 다른 하나는 ‘왜 귀신인가’이다. 눈에 보임을 강조함으로써 그 존재 자체를 부각시킴과 동시에, 그 귀신이 일반적인 귀신이 아니라 인간이 할 수 없는 무언가 큰 역할을 해낼 거라는 기대가 다가오는 것이다. 게다가 작가의 해석을 보면 작가가 말하는 귀신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귀신과는 약간의 거리가 있다. 작가가 이 작품의 自序에서 언급하는 귀신은 현재의 대만과 관련이 있다.

섬의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민주화가 성공을 거두면서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정당이 교체된 뒤로 서로 다른 정당 간에 공격이 시작되었고 밀고 당기는 투쟁이 끊이지 않으면서 각 분야의 발전이 정체성의 늪에 빠지고 말았다.

섬은 이미 경제적 우위를 상실하고 문화적 정체성을 결여한 데다 독립 자주성마저 상실했기 때문에 자신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중심으로 간주할 수 없게 되었고 필연적으로 대국을 중심으로 삼던, 주변화된 ‘고대의 황폐한 복종의 땅古荒服地’이 되는 것이 시간문제였다.

동시에 이 섬이 겪어 온 사백여 년의 다양한 문화적 축적과 성과 그리고 특수성은 기억으로만 남게 되었다.

이렇게 귀신의 나라가 되어, 나라는 있지만 영토는 없는 것이 되어, 일찍이 대국의 주체 안에 있었다던 소리는 자취를 감추고, 그저 세상 밖에서 어지럽게 울리는 귀신의 소리만, 귀신들의 울음소리만 가득하게 되었다.<sup>15)</sup>

위 인용문에서 눈에 띄는 것은 ‘이렇게 귀신의 나라가 되어, 나라는 있지만 영토는 없는 것이 되어’라는 대목이다. ‘문화적 정체성’과 ‘독립 자주성’을 상실하는 것은 곧 ‘나라는 있지만 영토는 없는’ 鬼國이 되는 것이므로 귀신이란 곧 다름이 아니라 정체성, 자주성, 특수성을 상실한 존재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는 육체와 영혼의

15) 《눈에 보이는 귀신》, 7쪽.



충실한 결합이 온전한 인간을 의미하듯, 한 나라에도 영토 외에도 인간의 영혼이라 할 수 있는 ‘문화적 정체성’과 ‘독립 자주성’ 또한 필수적이며, 이들이 결합되어 있다면 이는 귀신의 나라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제주의 4.3 소설 중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火山島》<sup>16)</sup>의 작가 김석범(金石範, 1925~ )은 재일 제주인 2세로서 국적은 조선적(朝鮮籍)이다. ‘조선’은 지구상에 존재하니 없는 나라이니 아마 이것이야말로 귀신의 나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는 그가 남북으로 쪼개어져 분단된 나라를 나라로 인정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가 보기에는 두 나라로 분단된 남한과 북한은 李昉이 언급했던 ‘문화적 정체성’과 ‘독립 자주성’ 이 결합된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귀신의 나라일 것이다.

## 2. 귀신의 역할

《눈에 보이는 귀신》의 귀신들은 복수의 대상이 이미 타의에 의해 몰락해 있거나, 타인의 도움을 받아 복수에 무난히 성공한다. 그러나 귀신들의 여정은 복수에 그치지 않는다. 작가의 말대로 작품의 중점은 ‘복수를 마친 귀신이 어떻게 자신의 자유를 찾아가는가 하는 데’에 맞춰져 있으며, 이들은 ‘모두 어둠의 극치를 경험하고 나서 새로운 출구를 찾게 되는 것이다.’<sup>17)</sup>복수라는 목표가 사라지거나 달성 된 후 이들의 여정을 개괄해보면, ‘자아에 대한 각성’, ‘인식의 심화’, ‘새로운 목표 설정’ 등을 들 수 있다.

### 1) 자아에 대한 각성

〈나라의 동쪽·정변과의 귀신〉의 月珍 / 月珠는 清代에 자신들이 가담했던 토지 환수운동이 반란으로 변질되어 비참하게 능욕당하면서 살해된 지 수백 년 후에야

16) 일본 文藝春秋社の 『文學界』에 1976년부터 연재하기 시작, 전7권 1997년 문예춘추사에서 완간. 한국에서는 1988년 실천문학사에서 그 1부를 번역했으나, 2015년에야 김환기, 김학동에 의해 보고사에서 12권으로 완역 출판되었다.

17) 〈리앙이 리앙을 인터뷰하다〉, 李昉, 김태성 역, 《눈에 보이는 귀신》(坡州, 문학동네, 2011), 429쪽. 이 글은 작가 리앙이 2011년 4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 인천문화재단이 주최한 ‘제2회 AALA(아시아/아프리카/라틴) 문학포럼’에 참석하여 발표한 강연원고이다.

허름한 작은 사당에 모셔졌다. ‘大家樂’, ‘六合彩’ 등 지하도박이 전 대만과 천여만 국민 전체의 운동이 되자, 月珍 / 月珠가 모셔진 사당에도 ‘명패(明牌)’<sup>18)</sup>를 내려 주기를 기원하는 사람들로 붐비게 되었다. 어느 날 밤, 가장 낮은 번호에 당첨된 사람 하나가 스트립댄서를 데려와 답례를 했는데, 스트립댄스를 추던 무녀의 신체적 결함을 보게 된 月珍 / 月珠의 귀신은 과거 스트립댄스를 추던 창녀들을 떠올렸다. 그 순간 그녀는 ‘정말로 자기 몸이 운명의 손에 맡겨진 거라면 굳이 뭔가에 집착할 필요도 없을 테고 수백 년 간 가슴에 맺혀 있던 응어리도 굳이 간직할 필요가 없을 터였다’고 깨달으면서 집착과 원한에서 벗어나게 된다.<sup>19)</sup>

〈나라의 북쪽·대나무의 귀신〉의 주인공은 귀신이 아니라 한의사 ‘漢藥仔仙’으로서 초기 대만 이주민의 전형적인 예이다. 명청대의 쇄국정책으로 인해 대만에 비밀리에 건너왔던 사람들은 대부분 빈곤층이나 탈주범 혹은 모험가들이었다. 한약자선 역시 임신 중이던 이웃집 여인과의 시비 끝에, 그 여인을 죽이게 되고, 그 후환이 두려워 대만으로 일가족과 함께 도주한 것이었다. 그러나 임신한 상태에서 죽었던 그녀의 귀신이 심해를 건너와 한약자선의 치부를 드러내면서 괴롭히자, 그 어디로 도주할 하더라도 안심할 곳을 찾아내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대만을 최후의 안식처로 삼기로 하면서 귀신과 타협 화해한다.

〈나라의 중심·불견천의 귀신〉에서 가문의 명예를 위해 자살을 선택했던 월홍/월현(선)의 혼백은 장서각에서 오랜 세월 독서를 한 끝에, 자신을 시문에 능하게 했던 것은 부친과 오빠들과 미래 남편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였고, 조상을 빛내지 못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을지언정 가문을 욕되게 하지 않는 것이 당시의 기풍이었던 것을 알게 되었다. 게다가 가족들이 추종한 것은 ‘천조의 유풍에 불과했던 것일 뿐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우물에 빠져 죽었던 귀신의 몸에서 떨어진 물 덕에 책자의 종이가 벌어지면서 별도의 쪽지를 펴보게 되는데, 거기에는 그녀가 상상도 못했던 남녀 간의 성적 환락과 타락이 가득 쓰여 있었다. 그리고 이어서 장서각을 뒤진 결과 《素女經》, 《玉房指要》, 《金瓶梅》 등과 다양한 음서를 발견하고는 이처

18) 명패: 1980년대 중엽 타이완 중부 지역에서 ‘다나튀’가 유행하면서 상금을 애국복권 형식으로 지급했다. 애국복권의 상금 지급이 비공개로 이루어지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사전에 번호가 유출되었다고 여겼고 이런 정보에 밝은 사람들을 ‘명패’를 가졌다고 표현했다. 《눈에 보이는 귀신》 53쪽 역주 참조.

19) 《눈에 보이는 귀신》 64쪽.

럼 다양한 음서를 소장했던 조상들의 명예와 그들이 세운 가문의 규례를 위한 자신의 자살은 덧없는 것이었음을 깨닫고는 거리를 떠도는 수많은 얼굴 없는 원혼들에게 관심을 두게 된다.

〈나라의 서쪽·여행하는 귀신〉의 月嬋 / 月娥는 집안에 재산도 많았고 혼수도 적지 않게 챙겨서 상선을 따라 단신으로 대만에 건너온 家誠/家忠과 결혼하나, 남편은 그녀를 살해하고 재산을 챙겨 도주한다. 여러 해가 지난 후 그녀들의 혼백이 지관의 도움으로 泉州에까지 가서 복수에 성공했다는 소문이 돈다. 원래 원수만 갚을 수 있으면 윤회 따위는 관심도 없다던 그녀였으나 복수에 성공한 다음, 그녀의 혼백은 지관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 지관이 주관하는 법회마다 지관의 곁을 지키며 참회의 경문을 듣고, 인간을 도와 공덕을 쌓기도 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생겨나는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 자신의 몸이 가벼워졌고 몸 곳곳에서 새나오던 피도 멈추었으며, 처참했던 신체도 온전해졌고, 경문을 통해 '인연에 따라 이 세상에 왔으니 인연에 따라 사라질 뿐'임을 깨닫고는 은인인 지관에게 은혜를 갚는 것이 그녀의 가장 큰 소망이 되었다.

혼백은 평생 시종으로 지관 곁을 지키고자 했으나 지관은 어느 날 때가 되었음을 알리며 우산 속에 몸을 숨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혼백은 이에 따라 여행할 수 있는 혼백이 된다.

## 2) 인식의 심화-구술사 서술

귀신하면 떠오르는 건 억울함과 그 억울함을 풀려는 복수일 것이다. 그러나〈눈에 보이는 귀신〉의 귀신들은 그 누구보다 억울하게 죽었으나, 복수에는 큰 뜻이 없다. 복수보다는 귀신으로서 습득한 초인적인 능력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한다.

그중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건 〈나라의 중심·불견천의 귀신〉의 월홍/월현(선)의 혼백이다. 〈나라의 중심·불견천의 귀신〉의 혼백은 어느 날 '五福路'를 가득 메운 채 시가행진을 하는 혼령들을 발견한다. 그들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궁금한 나머지 귀신은 '우푸로'에서 들은 온갖 소식들을 종합하고 정리하여 18차례의 청조정에 대한 대만인의 항쟁을 백여 년에 달하는 세월 동안 하나하나 써내려갔다.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면서 그녀는 자신을 ‘인도자(牽引)’라 자처한다. 이는 제주의 4·3 소설을 통해 “저승에 안착하지 못한 원혼들을 음습한 금기의 영역에서 대명천지의 밝은 태양 아래 불러내어 공개적으로 달래주”는 4·3 심방(제주의 무당) 같은 역할을 연상케 한다.<sup>20)</sup>

다른 한편 그녀는 우푸루에 떠돌던 소문들만을 모아 청 정부의 관원들이 기록했을 府志、縣志、廳志와는 달리, 통치 계층이 전부唐山(唐山)에서 파견되어 내려오고, 군대에서 절대로 타이완 출신 병사를 쓰지 않으며,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고 강압적으로 주민들을 괴롭히니, 저항이 생겨나는 것이라고 민간의 편에 서서 그 원인을 적는 것이었다. 청정부에서 ‘매국노’, ‘도적’, ‘부랑아’라 했던 것과 달리 그녀는 민간의 의견을 따라 ‘의인(義人)’, ‘선열(先烈)’로 기록했다. 그녀의 행위는 완전한 구술사 기술이다. 구술사에서는 ‘하층민, 비특권 집단, 그리고 패배자가 목격자가 될 수 있다. 그럼으로써 과거에 대한 좀 더 사실적이고 공정한 재구성이 가능하다.’<sup>21)</sup> 이러한 그녀의 행위는 중국 중심의 식민자의 사관을 비판하는 것이며 대만의 역사는 대만에서 나고 자란 대만인이 써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sup>22)</sup>

최근 제주의 역사 서술 역시 이러한 면이 반영되고 있다. 이영권은 지금까지의 역사교육은 ‘국가 이데올로기에 충실한 역사, 중앙 지배계급의 입장이 철저히 녹아 있는 그런 역사’라고 하면서 지방사 연구와 교육을 통해서 ‘역사를 주인에게 돌려줄 것’을 주장한다.<sup>23)</sup> 제주의 역사를 중앙 정부의 관점에서 기술할 것이 아니라, 제주도민의 입장에서 새로이 사고해볼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하층민, 비특권 집단, 그리고 패배자’일 수밖에 없었던 제주인의 관점에서 역사를 재해석해볼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 이에 의하면 고려도 몽고도 삼별초도 제주인에게는 동족이나 충성을 바쳐야 할 중앙 정부라기보다는 모두 외세에 불과했다. 또 牧胡의 난(1374

20) 작가 현기영에 대한 평가. 박경훈 《박경훈의 제주담론2》(제주, 각, 2014), 370쪽.

21) Thompson, Paul. 2000. “1. History and the Community” in *The Voice of the Past: Oral History*(3rd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p.26. 본고에서는 〈구술사, 과거의 목소리〉, 윤택림 편역, 《구술사, 기억으로 쓰는 역사》(서울, 아르케, 2010) 41쪽 참조.

22) 劉亮雅, 〈女性、鄉土、國族—以賴香吟的〈鳥〉與〈熱蘭遮〉以及李昂的《看得見的鬼》為例〉:《台灣文學研究學報》2009년 제9기, 30쪽 참조.

23) 이영권, 《새로 쓰는 제주사》(서울, 휴머니스트, 2005), 2-3쪽.

년)을 평정한 崔瑩(1316-1388)은 ‘민족의 영웅일지언정, 제주 사람들에게는 학살의 책임자일 수도 있다’는 관점도 제시 한다.<sup>24)</sup>

구술사의 의의는 무엇인가. Paul Thompson의 견해를 다시 인용하면, 구술사는 ‘사람들에게 그들 자신의 말로 역사를 되돌려준다. 그리고 과거를 되돌려줄 때, 구술사는 또한 사람들이 자신이 만드는 미래를 향하게 도와준다.’<sup>25)</sup> 구술사를 통해 역사가 바로 설 수 있고, 또 역사가 바로 서야만 사람들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구술사 기술을 통해 역사를 바로 세워서 사람들을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그녀의 역할이었다.

### 3) 새로운 목표 설정-해탈

《눈에 보이는 귀신》에는 <나라의 동쪽·정변과의 귀신>의 바부자 족 출신 인물을 필두로 대만에 이주한 족군들이 차례로 제시되었다. <나라의 북쪽·대나무의 귀신>에서는 대만인들의 폐쇄적인 성향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보인다. 鹿城에 갓 이주한 한약자선 일가에 보내는 鹿城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 ‘그들은 일백 년 전에 자신의 선조들도 唐山 인근 지역에서 바다를 건너 타이완으로 왔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렸다’라고 그들 역시 이주민임을 상기시키면서 족군의 구별이 무의미함을 내비친다.<sup>26)</sup> 그리고 대나무 마디를 상징으로 내세우며 소통을 통해 악연에서 벗어날 것을 주장한다.

속이 텅 빈 대나무 줄기는 아주 견고하고 서로 통과할 수 없는 마디들로 가로막혀 있었다. 전생과 이생, 이생과 또 그 다음 생의 끝없는 억울함과 원한도 이 대나무 줄기처럼 각자의 마디 속에 완전히 갇혀 영원히 서로 교류하고 교체될 수 없었다. 그 때문에 서로간의 용서와 속죄는 영원히 불가능했다.<sup>27)</sup>

24) 《새로 쓰는 제주사》 96쪽.

25) Thompson, Paul. 2000. *The Voice of the Past: Oral History*(3rd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p. 308. 본고에서는 윤택림 編譯: 《구술사, 기억으로 쓰는 역사》(서울, 아르케, 2010) 9쪽에서 참조.

26) 《눈에 보이는 귀신》 85쪽.

27) 《눈에 보이는 귀신》 102쪽.

〈나라의 서쪽·여행하는 귀신〉에서 月嬋/月娥의 혼백이 복수를 위해 갔던 泉州는 혼령이 보기에 자신의 고향이었던 鹿城(鹿城)과 너무 비슷하고 익숙했다. 거리의 분위기, 거리의 이름, 간판에 새겨진 글씨들 등등. 그곳은 그녀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고향이자 자신을 살해한 남편의 고향이기도 했으므로 이는 당연한 것이었다. 그녀는 이 두 지역의 흡사함으로 인해 복수에 대한 열망도 흔들리고 내세와 금생의 피안까지 생각하게 된다.

최근 한국에서 발표된 소설 《불타는 섬》<sup>28)</sup>과 영화 《지슬》 역시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불타는 섬》의 주인공 강철승의 생부는 산사람, 서류상의 아버지는 산사람 토벌에 앞장섰던 경찰이다. 이러한 설정을 통해 흑백논리가 부질없음을 일찍이 선언한다. 4·3에 대한 책임은 서북청년단을 비롯한 공권력의 패악에 저항한 도민 모두를 죄의분자로 매도하고 토벌명령을 내린 미군정과 이승만 우익 정권에도 있지만, 무모한 판단으로 무장 봉기를 일으켜 진압의 빌미를 제공한 죄의에게도 있다는 결론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이분법을 해체한다. 작가가 원했던 것은 '4·3 역사를 보는 대립적 시각들 사이에서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화해와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일'이었다.<sup>29)</sup>

영화 《지슬》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 박경훈은 이 영화에 대해 '동굴에서 고추를 태운 매운 연기가 바로 이 영화 전체를 하나로 묶는 4.3사건'이라고 해석한다. 영화의 마지막에서 매운 연기로 인해 동굴로 진입하지 못한 채 '마구잡이로 총을 쏘아 대며, 연신 눈물을 흘리는 토벌대'와 토벌대의 진입을 막기 위해 '고추를 태워 연기를 피우지만, 그 연기에 거의 질식사할 것처럼 눈물을 흘리고 기침을 토해내며 기절해가는 주민들'을 하나로 묶는 '매운 연기가 바로 4.3 사건의 본질이라는 것이다.'<sup>30)</sup>

다시 《눈에 보이는 귀신》로 돌아오면, 귀신의 궁극적인 역할은 해탈이었다. 〈나라의 서쪽·여행하는 귀신〉에서 月嬋/月娥의 혼백은 지관의 도움으로 우산에 숨어 여행을 할 수 있게 되었고, 홀로 배를 타고 여행을 하면서 배를 타고 온 것이 결국은 피안에 도달하기 위해서였으며 반드시 다시 와야 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28) 梁永修: 《불타는 섬》(서울, 은행나무, 2014)

29) 〈작가의 말〉, 收錄於, 《불타는 섬》, 296頁.

30) 〈영화 《지슬》을 보다〉, 收錄於, 《박경훈의 제주담론 1》, 408쪽.

그리고 이는 좀 더 마음을 놓고 편하게 떠나기 위해서였으며 이곳을 떠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곳과 관련된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는 것이었다는 데까지 생각이 미쳤다. 이어지는 여행 속에서 그녀는 혼돈과 회열에 반복적으로 빠져들면서 자신과 바다와 섬과 대륙이 일체라는 깨달음을 얻는다.

내가, 바다다.

더 많은 세월이 지났다. 물에 오르지 않는 배 위에서의 여행에서 귀신은 명상 도중에 일종의 공명의 상태에 진입했다. 자신의 몸이 무한히 존재하는 상태가 된 것이다. 여자 귀신은 이내 생각이 바뀌었다.—

내가, 바로 섬이고, 또한 대륙이다.<sup>31)</sup>

이제 鬼魂은 天燈을 타고 하늘을 날다가 발견했던 ‘사람을 태우고 있는 커다란 새’에 언젠가는 타보겠다는 희망을 품을 정도로 낙관적으로 변했다.

《불타는 섬》 역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는다. 작품의 막바지에서 한 산사람의 외동딸 부민희는 칠승 모자와 사회의 몰이해와 차별 끝에 죽는다. 죄책감에 시달리던 양철승은 홀로 남은 그녀의 아들 정만을 거두는데, 자신의 친아들을 오히려 주눅 들게 할 만큼 강인하게 자라는 아이의 모습을 보며 양철승은 시대가 철저히 멸절시켰던 가문의 역사가 눈부시게 푸르른 빛깔로 소생하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 IV. 結論

《눈에 보이는 귀신》에서 보이는 귀신들의 이야기는 대립과 갈등을 뛰어넘는 새로운 전망을 제시해준다. 작품의 중심은 귀신들의 복수가 아니라 그들이 복수를 마친 다음 찾아내는 새로운 출구였다. 李昴은 이에 대해 ‘과거의 불안과 몸부림은 모두 저항으로 인해 생겨난 불공평과 상처 그리고 왜곡으로 얼룩진 사회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었으며, 이 단계를 넘어서야만 한 단계 더 올라서서 새로운 방향과 기회

31) 《눈에 보이는 귀신》 396쪽.

를 탐색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sup>32)</sup>

분명 최근 대만과 제주에서는 과거에 대해 '기억의 자살'이나 '기억의 타살' 단계<sup>33)</sup>를 넘어 미래에 새로운 희망을 기탁하는 낙관적인 전망이 제시되고 있다. 그 사전 작업으로 '구술사'와 같은 역사의 민주화라는 단계가 필수적일 것이다. 중앙이나 대륙, 반도에서 섬을 내려다 본 역사가 아니라 현지인의 눈높이에서 과거를 다시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전망을 찾아 나가는 것이 앞으로 양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과제임이 분명해졌다 할 것이다.

### 【參考文獻】

- 李昂, 《看的見的鬼神》, 臺灣 新北, 聯合文學, 2004.  
 李昂, 김태성 역, 《눈에 보이는 귀신》, 파주, 문학동네, 2011.  
 梁永修, 《불타는 섬》, 서울, 은행나무, 2014.  
 이영권, 《새로 쓰는 제주사》, 서울, 휴머니스트, 200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사회학연구실 編, 《사회사 연구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8.  
 김학이·김기봉 외, 《현대의 기억 속에서 민족을 상상하다》, 부산, 세종출판사, 2006.  
 尹澤林 編譯, 《구술사, 기억으로 쓰는 역사》, 서울, 아르케, 2010.  
 高明士 編, 《台灣史》, 臺灣 台中, 五南, 2009.  
 朴趾源, 《燕巖集》第6券 別集.  
 현기영, 《순이삼촌》, 坡州, 創批, 2014년판.  
 Susan Snaider Lanser, 김형민 역, 《시점의 시학》, 서울, 좋은날, 1998.  
 崔元植·白永瑞 編, 《대만을 보는 눈: 한국-대만, 공생의 길을 찾아서》, 파주, 창비, 2012.  
 朴景勳, 《박경훈의 제주담론 1, 2》, 제주, 각, 2014.  
 보리스 우스펜스키, 김경수 역, 《소설구성의 시학》, 서울, 현대소설사, 1992.

32) <리앙이 리앙을 인터뷰하다>, 《눈에 보이는 귀신》(坡州, 문학동네, 2011) 435쪽.

33) <http://news.donga.com/List/3/04/20030411/7933655/1>

김석범은 이 인터뷰에서 기억에 대해 '하나는 막강한 권력에 의한 타살, 다른 하나는 공포에 질린 섬사람들 자신이 스스로 기억을 망각으로 들이쳐서 죽이는 기억의 자살'이라고 기억을 분류했다. 또한 위정자들은 '기억의 암살자'로 불렸다.



劉亮雅,〈女性、鄉土、國族—以賴香吟的〈島〉與〈熱蘭遮〉以及李昂的《看得見的鬼》爲例〉:《台灣文學研究學報》제9기, 2009年10月.

김석범,〈기억의 부활〉 <http://news.donga.com/List/3/04/20030411/7933655/1>

### 【中文提要】

李昂在《눈에 보이는 귀신》裡透過鬼故事,提出人民要超越‘對立’和‘社會矛盾’,她想說的是人民要走新路程,而不是‘厲鬼的復仇’。李昂自己也曾經說過‘對過去的不安都是一種糾正在對抗的過程中產生的不公平和傷口的產物,超越這個階段才能找到新的方向和機會, …’。

最近很多人提出台灣和濟州對過去的看法需要超越‘記憶的自殺(金石範)’或者‘記憶的他殺(玄基榮)’的階段,並且能夠給予後代新的希望。爲了超越現在階段,我們首要完成像‘口述史’一樣的歷史民主化過程。台灣和濟州的歷史不應再是在中央、大陸或半島上俯視島嶼的角度,應以台灣和濟州當地居民的立場來審視過去歷史。我們很確定我們必須根據新的歷史觀,提出未來的新展望。

### 【主題語】

《눈에 보이는 귀신》, 대만, 제주, 리앙, 기억, 망각, 구술사, 2.28, 4.3

《看的見的鬼神》, 臺灣, 濟州, 李昂, 記憶, 忘却, 口述史, 二二八, 四三

Visible Ghosht, Taiwan, Jeju, Li Ang, memory, oblivion, The Taiwan Uprising of February 28, The Jeju Uprising

투고일: 2016. 4. 15 / 심사일: 2016. 4. 20~5. 5 / 게재확정일: 2016. 5. 15